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의적 요인이 한국어 숙달도에 미치는 영향

김미강 경희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박사수료(제1저자)

김영주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교신저자)

- I. 서론
- II. 선행연구
- III. 연구 방법
- IV. 결과 분석 및 논의
- V. 결론

I. 서론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족 자녀는 93.1%로 조사를 거듭할수록 그 수는 증가하였다(2012년 78.7%, 2015년 84.5%).¹⁾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국내 성장 자녀의 경우 95.5%, 외국 거주 경험이 있는 자녀의 경우 90.0%가 재학 중인 것으로 보고되나,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의 경우에는 66.8%만이 재학 중이어서 이들의 삼분의 일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그만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로 학교 공부가 어렵거나(63.3%),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53.5%)라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외국 성장 다문화 가족 자녀가 학업과 교우 관계에서

1)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 가족 인구의 현황과 특성 그리고 경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3년마다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문화 가정 자녀 중 중도입국 자녀들은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의 경우에 해당한다.

성공할 수 있는 열쇠는 한국어 습득임을 여러 연구들이 주장하였다(배상률, 2016; 양계민·조혜영, 2012; 전경숙·송민경, 2011). 이런 주장에 뒷받침이 될 만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한국어 습득에 관한 연구들이 최근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윤향희(2016)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다른 한국어 학습자보다 특수한 환경과 학습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리·정서적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렇게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연구들은 한국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먼저 학습 동기와 외국어불안에 대한 연구들(김미강·김영주, 2018; 김아름·김영주·이선영, 2013; 홍종명, 2014)이 시도되었고, 이어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과제인 문화적응과 관련된 연구들(김미강, 2018; 김미강·김영주, 2018; 김영순·박봉수·팜티웬짱, 2012)도 발표되었다.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제2언어 습득에서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갖는 평가와 신념으로 과제 수행에 대한 노력을 이끌고 지속하게 만드는 힘을 말한다. 이에 여러 연구자들은 이 요인들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주목해 왔다(Bandura, 1977; Chen, 2007; Kalanzadeh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제2언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함께 외국어불안을 측정하고 학업성취도의 단면으로 한국어 숙달도를 파악하여 이들 요인들과 한국어 숙달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외국어불안의 양상은 어떠한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성별, 출신 국가, 한국 거주 기간, 한국어 학습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외국어불안이 한국어 숙달도와 상관관계가 있는가?

셋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외국어불안이 한국어 숙달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선행연구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의적 요인 중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외국어불안에 집중하여 이를 요인들과 한국어 숙달도와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본 장에서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외국어불안 각각과 제2언어 습득과의 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겠다.

1. 자아존중감

Brown(2000: 145)은 어떠한 인지적, 정의적 활동도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일정 수준의 자아존중감, 자기확신, 자기효능감이 없이는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만큼 제2언어 습득에서의 정의적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졌다(Kalanzadeh et al., 2013).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갖는 평가라는 의미로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았으나(Gecas, 1972; Gordon, 1969; Watkin, 1978)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 30)의 정의를 따로²⁾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기 존중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라고 하겠다.³⁾

자아존중감이 외국어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들이 국외에서 활발히 이뤄져 왔다(Alrabai, 2017; Habrat, 2018; Kalanzadeh et al., 2013). Alrabai(2017)는 영어를 외국어로서 학습하는 263명의 사우디아라비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영어 성취도의 관계를 실

-
- 2) Rosenberg의 측정도구는 가장 문화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청소년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보가·전귀연, 1993; Schmitt & Allik, 2005).
 - 3) Self-esteem is a positive or negative attitude toward a particular object, namely, the self(Rosenberg, 1965: 30).

험하였다. 그 결과, 두 요인이 높은 정적 상관관계($r=.414$)가 있음을 밝혔다. Kalanzadeh et al.(2013)에서도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존감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을 나눴을 때 자존감이 높은 그룹이 교실 말하기 활동에서 성취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자아존중감 연구는 아직까지 다른 정의적 요인들(예를 들어, 학습동기, 불안,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들에 비해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백지숙(2011)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꼽았다. 다문화 인구의 한국어 능력과 자아존중감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 권복순(2009)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보고하였으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가 자기 실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는 점이 아쉬웠다.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한국어 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유일한 연구는 이형하(2017)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들을 알아보고 그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한국어 능력과 자아존중감을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았고 한국어 능력과 자아존중감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한국어교육의 측면에서 학습자로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한국어 능력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자가 평가로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신뢰도면에서 아쉬운 연구였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Bandura의 정의를 따르면 자기효능감이란 특정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음을 뜻한다(Bandura, 1977: 3).⁴⁾ 이 자기효능감이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

4) Beliefs in one's capabilities to organize and execute a course of action required

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Bandura가 이론을 만든 1970년대 이후 계속 되었다 (Bouffard-Bouchard, 1989; Pajares, 1996; Schunk & Hanson, 1985). 제2 언어 학습 분야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언어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황명환, 2017; Chen, 2007)이 있는데, 먼저 Chen(2007)은 EFL 환경의 대만 대학생 277명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영어 듣기 수행에 강한 성공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도 황명환(2017)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능력과 자기효능감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도 성공적인 언어 습득의 예측 요인으로 정의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면서 자아효능감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강귀종·조위수, 2018; 손성희·전나영, 2011; 손성희·전나영·황청일, 2012; 안한나, 2018; 주운·이용남, 2010). 한국어 능력과 자기효능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손성희·전나영(2011)과 손성희 외(2012)가 유일한데 두 연구 모두 동일한 교육 기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제1언어가 서로 다른 700 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숙달도와 성취도가 자기효능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 한국어 숙달도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한국어 성취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여기서 한국어 숙달도는 교육 기관의 급수로 측정하였고 성취도는 교육 기관의 성취도 평가 점수로 측정하여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3. 외국어불안

불안은 자아존중감, 억제(inhibition), 모험시도(risk-taking)와 함께 복잡하게 얹혀 제2언어 습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Brown, 2000: 150)이다. 본 연구에서 불안의 정의는 Horwitz et al.(1986)에서 찾았는데 그 이유는 이 연구가 여러 연구 대상의 불안들 중 외국어 학습자 불안을 연구하였고

producing a given attainment(Bandura, 1977: 3).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Horwitz et al. (1986: 125)는 ‘불안이란 자율신경계의 흥분과 관련된 긴장, 우려, 근심과 같은 주관적인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⁵⁾ 외국어불안은 특별히 상황적 불안에 보다 초점을 두고 설명되는데, 외국어를 학습하는 상황에서의 불안을 지칭한다(Brown, 2000).

이 외국어불안을 설명하는 하위 요인으로 ‘의사소통 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시험 불안’ 세 가지가 있다(Horwitz et al., 1986: 126). ‘의사소통 불안(communication apprehension)’이란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적절하게 전달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ear of negative social evaluation)’이란 사회적으로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싶은 학습자의 요구에서 생기는 것을, 마지막으로 ‘시험 불안(test anxiety)’이란 학업 평가에서 생기는 것을 가리킨다. 외국어 학습과 불안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이들이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는 연구들이 많으나(Horwitz et al., 1986; MacIntyre & Gardner, 1989; Young, 1991), 불안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는 연구(Scovel, 1978)도 있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불안과 한국어 학습 간의 관계를 살핀 연구들은 기존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불안 수준이 높은 학습자가 그렇지 않은 학습자보다 학업 성취도가 저조하다고 하였다(권유진·남상은·김영주, 2010; 최정순·안경인, 2009). 특히 권유진 외(2010)는 말하기와 쓰기 영역의 학업성취도가 불안 정도와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외국어불안에 대한 연구로 김미강·김영주(2018)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습 동기, 불안, 문화적응을 측정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불안은 문화적응의 하위 요인인 ‘분리’와 ‘주

5) Anxiety is the subjective feeling of tension, apprehension, nervousness, and worry associated with an arousal of the autonomic nervous system(Horwtiz et al., 1986: 125).

변화' 유형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학습 동기의 하위 요인인 '부모의 격려'와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인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 숙달도와 불안과의 관계는 살펴보지 못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 청소년 7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중도입국'과 '청소년'의 개념을 정리해 봄야 한다. 김미강(2018)의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의를 따라 '첫째, 한국인과 결혼하는 이민자가 본국에서 이전 결혼에 의한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 둘째, 국제 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학령기에 입국한 경우, 셋째, 재한외국인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본국에 있는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 넷째, 탈북자와 외국인 사이의 자녀가 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경우'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만 9세 이상 24세 미만의 기준을 따랐다.

본 연구 참여자의 나이는 평균 만 17.3세이고 성별은 남자 74.7%, 여자 25.3%로 남자가 많다. 출신국은 중국 44.3%, 베트남 40.5%, 필리핀 7.6% 순으로 많았고 그 외 국가는 1명씩이다. 국적이 아닌 출신국으로 표시한 이유는 귀화를 통해 국적이 달라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모국의 개념으로 출신국으로 학생들을 나누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인구사회 학적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설문 조사 참여자 정보

정보	구분	인원(명)	백분율(%)
연령	14세	1	1.3
	15세	8	10.1
	16세	16	20.3
	17세	25	31.6
	18세	14	17.7
	19세	8	10.1
	20세	4	5.1
	21세	2	2.5
	22세	1	1.3
성별	남자	59	74.7
	여자	20	25.3
출신국	중국	35	44.3
	베트남	32	40.5
	필리핀	6	7.6
	그 외 ⁶⁾	6	7.6
한국 거주 기간	1년 미만	0	0
	1년 이상 2년 미만	9	11.4
	2년 이상 3년 미만	21	26.6
	3년 이상 4년 미만	17	21.5
	4년 이상 5년 미만	15	19.0
	5년 이상 6년 미만	10	12.7
	6년 이상 7년 미만	4	5.1
	7년 이상 8년 미만	1	1.3
	8년 이상 9년 미만	1	1.3
	9년 이상 10년 미만	1	1.3

6) 브라질, 키르기스스탄, 태국, 폐루, 몽골, 캄보디아 출신 학생이 각 1명씩이다.

한국어 학습 기간	1년 미만	2	2.5
	1년 이상 2년 미만	12	15.2
	2년 이상 3년 미만	26	32.9
	3년 이상 4년 미만	11	13.9
	4년 이상 5년 미만	15	19.0
	5년 이상 6년 미만	7	8.9
	6년 이상 7년 미만	4	5.1
	7년 이상 8년 미만	1	1.3
	8년 이상 9년 미만	0	0
	9년 이상 10년 미만	1	1.3

2. 연구 도구

1)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되어 온 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Schmitt & Allik(2005)는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를 28개 국어로 번역하여 53개국의 16,998명의 참여자에게 실시하여 문화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Rosenberg 척도가 청소년용으로 자아존중감을 총체적으로 측정하는 데 신뢰도와 타당도가 상당히 높아 권장할 만하다는 연구(최보가·전귀연 1993)와 단일요인 척도임을 확인한 연구들이 있다(이자영·남숙경·이미경·이지희·이상민, 2009; Hensley, 1977; Pullmann & Allik, 2000).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느낌을 측정하여 총체적인 자기 가치를 측정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4점 리커트식 척도로 단일요인 구조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 내적 합치도 검사에서 .926의 높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표 2〉 자아존중감 설문 문항 예시(한국어)

내용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2	3	4
1.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1	2	3	4
2.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3.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1	2	3	4

(이하 생략)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척도는 Bandura의 이론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김아영·박인영(2001)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개의 요인(자신감 8문항, 자기조절효능감 10문항, 과제난이도 선호 10문항), 총 2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신감’이란 일반적인 의미의 자신감이 아니라 학업적 상황에 적용하여 학문적 수행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 또는 신념이라고 정의한다(김아영·박인영, 2001). ‘자기조절효능감’이란 학업 수행의 과정에서 목표 설정, 주의 집중, 행동 조정 등 일련의 자기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하는지에 대한 기대이다(김아영·박인영, 2001).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하는데(Bandura, 1988), 이렇게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려는 성향이 세 번째 구인인 ‘과제난이도 선호’이다. 예비조사에서 문항 내적 합치도가 각 구인이 .911, .875, .928로 모두 높은 신뢰도로 나타났다.

〈표 3〉 자기효능감 설문 문항 예시(한국어)

내용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2	3	4
1. 나는 수업시간에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1	2	3	4

2.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1	2	3	4	5	6
3.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내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준다.	1	2	3	4	5	6

(이하 생략)

3) 외국어불안

불안 척도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한국어 학습 환경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Horwitz et al.(1986)의 ‘외국어 교실 불안 척도(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Scale: FLCAS)’를 사용하였다. FLCAS는 총 33문항으로 5점 리커트식 척도이다. 그런데 본 연구 참여자들이 국내 고등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국내 고등학생 상황에 맞지 않는 문항인 ‘나는 외국어 수업에 낙제 할까봐 걱정한다’를 삭제하였다. 이렇게 총 32개의 문항에 대하여 예비조사 과정을 거치고 신뢰도 검증에서 .948이라는 높은 내적 합치도를 얻었다.

〈표 4〉 외국어불안 설문 문항 예시(한국어)

내용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한국어 수업에서 말할 때 늘 자신이 없다.	1	2	3	4	5		
2. 나는 한국어 수업에서 실수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1	2	3	4	5		
3. 나는 한국어 수업에서 호명될 것을 알 때 떨린다.	1	2	3	4	5		

(이하 생략)

4) 한국어 숙달도

본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어 숙달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Lee-Ellis(2009)의 한국어 빈칸 채우기 시험을 사용하였다. 여러 연구들에서 실험 참여자의 한국어 숙달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어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권복순,

2009; 이형하, 2017), 교육 기관의 급수(손성희·전나영, 2011), 교육 기관의 성적(권유진·김영주, 2011; 최정순·안경인, 2009), TOPIK 유형의 자체 제작 평가지(고형진·김영주, 2011)를 사용하였다. 이런 평가 도구들은 모두 신뢰도와 타당도가 공개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다. 한국어 숙달도를 평가하는 가장 공인된 평가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평가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많은 연구들에서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빠르고 실용적인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고 Lee-Eliis(2009)에서 Klein-Braley(1981)의 C-test를 한국어 버전으로 고안하여 한국어 숙달도 평가도구를 개발하게 되었다. Lee-Eliis(2009)의 한국어 빈칸 채우기 시험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고 초급 이상 수준이면 누구에게나 적용이 가능한 범용 한국어 숙달도 시험이다.

한국어 빈칸 채우기 시험은 총 4개의 단락이 주어지는데 각 단락은 다른 내용의 글로 이뤄졌으며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진다. 문장에 있는 빈칸에 적절한 단어를 채우는 것으로 맞힌 빈칸은 1점으로 처리해서 점수가 높을수록 숙달도가 높다.

〈표 5〉 한국어 빈칸 채우기 시험 예시

Passage 1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저는 대학____ 다닙니다. 아침에 일어____ 학교 체육____ 갑니다. 체육____ 운동을 합_____. 운동을 한다____ 아침을 먹습니다. 아침은 기숙____ 식당에서 먹습니다. 저는 대학____ 한국어를 배_____. 한국어 수____ 매일 오____ 10시에 시작_____. (이하 생략)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외국어불안을 알아보고 이들이 한국어 숙달

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한국어 숙달도 시험을 제외한 세 가지 측정 도구는 모두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번역 제작되었고 한국어 교육 경력 5년 이상인 동료 교사 3인의 검증 과정을 거쳐 문항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서로 국적이 다른 5명의 중도입국 청소년 실험자에게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설문 문항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측정 도구의 Cronbach α 계수는 자아존중감이 .926, 자기효능감이 하위 요인별로 .911(자신감), .875(자기조절효능감), .928(과제난이도 선호), 외국어불안이 .948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설문은 2018년 10월, 2019년 10월, 2020년 7월 세 차례에 걸쳐 매년 신입생이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설문을 받는 방식으로 누적 집계하였다. 회수된 설문은 SPSS 2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참여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설문 문항의 내적 합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성별과 국적(중국, 베트남)에 따른 요인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 검정을 시행하였다. 끝으로, 세 정의적 요인과 한국어 숙달도 간의 상관관계와 영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변량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분석 및 논의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 79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외국어불안을 측정하여 이들의 한국어 숙달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연구 목적 하에 수집된 설문 자료를 SPSS 25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습자 변인에 따른 정의적 요인

본 연구에 참여한 79명의 응답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연구 참여자 기술통계 분석 결과(N=79)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불안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괴제난이도 선호	
평균	28.87	4.07	3.83	3.80	2.42
표준편차	4.44	.95	.73	.85	.63

자아존중감은 40점 만점 척도인데 본 연구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평균은 28.87이었다. 동일한 척도로 실험한 Schmitt & Allik(2005)에서 53개국 16,998명의 참여자들의 평균은 30.85(SD = 4.82)였다. 또한 국내 연구 중 이자영 외(2009)도 동일한 척도로 국내 고등학생 987명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는데 평균이 33.2였다. 평균 비교를 검증해봐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동일한 척도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두 연구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 참여자들은 여러 국가 수준이나 한국 고등학생 수준에 못 미치는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경우는 자아존중감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다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강귀종·조위수, 2018; 김미란·한수정, 2018; 손성희·전나영, 2011)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 참여자들이 높은 자기효능감 점수를 갖고 있다. 손성희·전나영(2011)에서는 762명의 한국 어교육기관 학습자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을 조사하였다. 전체 평균은 보고 돼 있지 않지만 성별에 따른 평균을 보면 세 가지 하위 영역 모두 본 연구 참여자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자신감 남 3.10/여 3.04, 자기조절효능감 남

3.27/여 3.29, 과제난이도선호 남 3.28/여 3.16).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강귀종·조위수(2018)에서는 두 개 요인 ‘자신감’과 ‘과제난이도 선호’는 본 연구 참여자보다 낮은 점수를 ‘자기조절 효능감’에서는 유사한 점수를 나타냈다(자신감 3.50, 자기조절효능감 3.87, 과제난이도 선호 3.66).

본 연구 참여자들의 외국어불안 수준은 평균 2.42였다. 동일한 척도를 사용해서 실험한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권유진·김영주(2011)와 최정순·안경인(2009)이 있다. 권유진·김영주(2011)은 유학생 179명을 대상으로 아시아계와 비아시아계로 나눠서 외국어불안을 조사하였는데 아시아계 평균이 3.12($SD=.923$)였다. 최정순·안경인(2009)에서는 중국인 유학생 30명으로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평균이 2.89($SD=.61$)였다. 두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한국어 학습에 갖는 외국어불안이 다른 한국어 학습자들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성별과 출신국별로 정의적인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을 구분하여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외국어불안과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외국어불안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Hani Abood et al.(2019)와 일치하는 결과로 Hani Abood et al.(2019)에서도 자아존중감과 외국어불안이 각각 성별에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기효능감 중 과제난이도 선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7〉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

하위 영역	남학생(n=56)		여학생(n=23)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신감	4.067	.981	4.150	.792	-.415	.680

자기조절효능감	3.929	.773	3.726	.664	1.234	.224
과제난이도선호	3.907	.830	3.448	.715	2.394	.019*

* $p < .05$, ** $p < .01$

자기효능감의 세 가지 하위 영역 중에서 ‘과제난이도 선호’에서 남학생 평균이 3.907, 여학생 평균이 3.448로 측정되었고 유의수준 .019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손성희·전나영(2011)의 결과와 일치하는데 본 연구와 같이 ‘자기조절효능감’과 ‘자신감’에서는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과제난이도 선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별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참여자 수가 가장 많은 두 출신국인 중국과 베트남의 요인별 평균 비교를 실시해 보았다. 그러나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외국어불안 모두에서 중국과 베트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한국 거주기간과 한국어 학습기간과 세 정의적 요인, 그리고 한국어 숙달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상관분석 결과 한국 거주기간은 유의수준 .01에서 한국어 숙달도와 정적 상관($r=341$)이 있고 한국어 학습기간 또한 유의수준 .001에서 정적 상관관계($r=404$)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학습기간과 세 정의적 요인(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외국어불안)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정의적 요인과 한국어 숙달도 간 상관관계

연구 참여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외국어불안 그리고 한국어 숙달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자아존중감은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과 정적 상관관계, 외국어불안과는

부적 상관관계, 한국어 숙달도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서로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Najloo(2014)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외국어불안 간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Hani Abood et al., 2019)와도 일치한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한국어 숙달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이 형하(2017)의 결과와 일치한다. 중도입국 청소년들 역시 다른 외국어 학습 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정의적 요인이 한국어 습득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정의적 요인과 한국어 숙달도 간 상관관계(N=79)

	자아 존중감	자기효능감			불안	한국어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흐		
자아존중감	r	1	.186	.434**	.144	-.582**
	p		.101	.000	.206	.000
자기 효능감	자기조절 효능감	r	1	.184	.544**	-.183
		p		.105	.000	.106
	자신감	r		1	.148	-.556**
		p			.192	.000
	과제난이도 선흐	r			1	-.183
		p				.106
불안	r				1	-.393**
	p					.000

r=상관계수, p=유의확률, *p < .05, **p < .01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면 하위 세 가지 영역 중 ‘자신감’이 외국어불안, 한국어 숙달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기효능

감의 ‘자신감’과 외국어불안은 강한 부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결과는 주운·이용남(2010)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자신감’이 높을수록 한국어 숙달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동기 요인 중의 하나가 자신감이라고 한 손성희·전나영(2011)의 결과와 일치한다. 중도입국 청소년들도 자신감 있는 학습자가 한국어 학습에 성공적일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외국어불안을 살펴보면 외국어불안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 마지막으로 한국어 숙달도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불안이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긴장감을 주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Scovel, 1978)도 있지만 외국어 학습에서의 불안이 언어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대부분의 연구들(권유진 외, 2010; 최정순·안경인, 2009; Horwitz, et al., 198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외국어불안은 중도입국 청소년 학습자들의 한국어 숙달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관계가 확인된 요인을 정리하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하위 영역인 ‘자신감’ 간에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한국어 숙달도 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자아존중감과 외국어불안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외국어불안과 자기효능감의 ‘자신감’ 간 그리고 외국어불안과 한국어 숙달도 간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자신감) 점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외국어불안 점수가 낮을수록 한국어 숙달도 점수가 높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정의적 요인들이 한국어 숙달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3. 정의적 요인이 한국어 숙달도에 미치는 영향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세 하위 요인 중 자신

감), 외국어불안 그리고 한국어 숙달도 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선형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자아존중감이 한국어 숙달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아래 <표 9>와 같다. 자아존중감 점수로 한국어 숙달도 점수를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F 통계값은 7.940, 유의확률은 .006으로 유의수준 .01에서 한국어 숙달도 점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어 숙달도 점수 총변화량의 9.3%(수정된 결정계수에 의하면 8.2%)가 자아존중감 점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표 9> 자아존중감과 한국어 숙달도에 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N=79)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자아존중감	3.025	1.074	.306	2.818	.006

$R=.306, R^2=.093$, 수정된 $R^2=.082, F=7.940, p=.006$

다음으로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 중 한국어 숙달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자신감’과 한국어 숙달도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아래 <표 10>과 같다. ‘자신감’ 점수로 한국어 숙달도 점수를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F 통계값은 5.440, 유의확률은 .022로 ‘자신감’ 점수는 유의수준 .05에서 한국어 숙달도 점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어 숙달도 점수 총변화량의 6.6%(수정된 결정계수에 의하면 5.4%)가 ‘자신감’ 점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표 10〉 ‘자신감’과 한국어 숙달도에 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N=79)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자신감	11.693	5.014	.257	2.332	.022

$R=.257$, $R^2=.066$, 수정된 $R^2=.054$, $F=5.440$, $p=.022$

마지막으로 외국어불안과 한국어 숙달도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아래 〈표 11〉과 같다. 외국어불안 점수로 한국어 숙달도 점수를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F* 통계값은 14.024, 유의 확률은 .000로 외국어불안 점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한국어 숙달도 점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어 숙달도 점수 총변화량의 15.4%(수정된 결정계수에 의하면 14.3%)가 외국어불안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표 11〉 외국어불안과 한국어 숙달도에 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N=79)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외국어불안	-27.549	7.357	-.393	-3.745	.000

$R=.393$, $R^2=.154$, 수정된 $R^2=.143$, $F=14.024$, $p=.000$

여기까지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된 영향 관계를 정리해 보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자신감), 외국어불안 세 정의적 요인 모두가 한국어 숙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크기를 보인 외국어불안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한국어 숙달도를 14.3%의 크기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 숙달도 향상에 외국어불안이 미치는 영향 정도를 예측하게 하며 이들 대상의 한국어 수업에서 불안감을 낮추는 교육 방법에 대해 숙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질문에 따라 논의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아존중감은 다른 국가의 청소년과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 보호와 지지를 받고 성장해야 할 시기에 결핍을 겪으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실제로 정부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중도입국 청소년은 입국 전 부모와 떨어져 지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69%에 달했고 별거 기간이 '3년 이상'이라 응답한 청소년은 41.8%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상률, 2016). 성장기에 겪는 부모와의 별거는 이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에서는 본 연구 참여자들이 다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점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또래의 다른 청소년에 비해 혼자 결정하고 해결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유년 시절부터 가족의 지지와 보호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자신 앞에 주어지는 문제나 과제를 대할 때 비교적 독립적이고 자신의 의지를 믿는 경향이 강해졌을 것이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부모님 혹은 환경적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입국한 경우(27.1%)에 비해 본인 스스로 한국에 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입국한 경우(61.3%)가 많다(배상률, 2016).

한편,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나이도가 높은 과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특히 남아의 경우 '강해야 함'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더 강조되었을 수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교실 상황에서 교사는 이들의 강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고려하고 성별에 따라 나이도의 변화량을 조절하여 과제를 제시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겠다.

본 연구 참여자의 외국어불안 점수는 다른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외국어불안 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학습 목적이 다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단기간 목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한

국어를 공부하는 유학생들과는 달리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언어인 한국어에 대해 갖는 태도가 다르다.⁷⁾ 실제로 중도입국 학습자들은 학교 안팎에서 한국어를 생활 언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의 외국어불안은 다른 학습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다.

또한, 상관관계가 유의수준으로 입증된 정의적 요인들과 한국어 숙달도 사이의 영향 관계 또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자신감), 외국어불안 정도가 한국어 숙달도에 영향을 미치며 그중 외국어불안이 미치는 영향 정도가 큼을 확인하였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본 연구 참여자들의 외국어불안이 타 연구 한국어 학습자의 외국어불안 정도에 비해 낮은 편이나 본 연구의 다른 정의적 요인들에 비해 한국어 숙달도 총변화량을 설명하는 정도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성공적인 한국어 습득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의 사소한 외국어 불안 감소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에서 거주하며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사소한 불안도 한국어 사용을 방해하고 위축시킬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하는 결과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 청소년 79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의적 요인(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외국어불안)과 한국어 숙달도를 측정하여, 정의적 요인과 한국어 숙달도 간에 상관관계를 보이며 영향 관

7) 2018년 전국 다문화가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적이 없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70.2% 가 향후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였다.

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교육적 의의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특수한 정서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한국어 학습자들과 획일적 교육 방식을 지양해야 함이다. 낮은 자아존중감을 고려하여 성취 경험을 많이 가질 수 있는 학습 과제를 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한국어 학습을 위하여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특히 외국어불안을 낮출 교육 환경 조성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모국의 문화를 공유하고 자연스럽게 학교생활 속에서 친구들과 향유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자신감 고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개개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과제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을 하나의 특성으로 묶어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성별, 출신국 등과 같은 개인적 변인에 따라 학습 과제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름을 인지하고 교육 현장에 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의적 요인과 한국어 숙달도 간의 관계를 밝혀 한국어 학습자로서 중도입국 청소년을 이해하는 데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한국어 숙달도를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로 측정하였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숙달도를 여러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어휘 및 문장 구조로 전체 숙달도를 예측하였다는 점은 이 연구의 아쉬운 점이라 꼽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결론 내리기에 조심스러운 점이 있는데 본 연구 참여자들이 특정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먼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정의적 요인과 학교생활 전반의 성취도와의 관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같은 정의적 요인이 학업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종국적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의적 요인 외에 언어적 성과 같은 인지적 요인을 측정하여 이를 변인과 한국어 숙달도, 나아가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도 전반적으로 살펴 현실적으로 어떤 변인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수업 현장에서 적용할 방안을 찾는 연구들도 필요하겠다.

- * 본 논문은 2021.2.7. 투고되었으며, 2021.2.18. 심사가 시작되어 2021.3.16. 심사가 종료 되었음.

참고문헌

- 강귀종·조위수(2018),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의 관련성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6), 231-252.
- 고형진·김영주(2011),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결정성 동기 유형과 학업 성취도와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어교육』 22(1), 1-26.
- 권복순(2009), 「한국어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1(2), 5-32.
- 권유진·김영주(2011), 「한국어 학습자의 외국어불안과 모험시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이중언어학』 45, 27-49.
- 권유진·남상은·김영주(2010), 「외국어불안과 교실상황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5, 381-402.
- 김미강(2018),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이 한국어 숙달도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이중언어학』 70, 28-57.
- 김미강·김영주(2018),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습 동기, 불안 및 문화적응 간의 상관관계 연구」, 『이중언어학』 73, 1-28.
- 김미란·한수정(2018), 「고등학생의 개인적·사회적요인, 학교진로교육 경험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9), 399-405.
- 김아영·박인영(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 김아름·김영주·이선영(2013), 「중국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국어 습득과 학습자 변인 연구」, 『새국어교육』 94, 469-498.
- 김영순·박봉수·팜티웬쭝(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 중심 재사회화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언어와 문화』 8(3), 37-63.
- 배상률(2016),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백지숙(2011),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적 배경,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3), 119-131.
- 손성희·전나영(2011),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 분석」, 『한국어교육』 22(3), 133-152.
- 손성희·전나영·황청일(2012), 「한국어 학습자의 귀인성향,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 관계 분석」, 『한국어교육』 23(2), 171-189.
- 안한나(2018), 「한국어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 특수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불안감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4(2), 27-54.
- 양계민·조혜영(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 사회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9(11), 195-224.
- 윤향희(2016), 「국제재혼가족 청소년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갈등사례를 바탕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자영·남숙경·이미경·이지희·이상민(2009),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21(1), 173-189.
- 이형하(2017),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분석: 보호 요인의 조절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5(12), 59-70.
- 전경숙·송민경(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출신국적 배경에 따른 한국생활 적응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18(11), 305-330.
- 주운·이용남(2010), 「중국유학생의 한국어 학습동기, 의사소통 불안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교육연구』 33, 23-37.
- 최보가·전귀연(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4.
- 최정순·안경인(2009), 「한국어 학습자의 불안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시학과 언어학』 17, 199-229.
- 홍종명(2014), 「중도입국 청소년 한국어 학습 동기 연구」, 『어문론집』 60, 421-446.
- 황명환(2017), 「한국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그릿, 자기효능감, 영어능력 사이의 관계 연구」, 『영어교육연구』 29(2), 145-164.
- Alrabai, F. (2017), "Self-esteem of Saudi learners and its relationship to their achievement in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nglish Linguistics Research* 6(4), 1-12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88), "Perceived self-efficacy in the exercise of personal agency", *Revista Espanola de Pedagogia* 48(187), 397-427.
- Bouffard-Bouchard, T. (1989),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performance in a cognitive task",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0, 353-363.
- Brown, H. D.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NY: Longman
- Chen, H.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EFL learners' self-efficacy beliefs and English performance", Ph.D,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 Gecas, V. (1972), "Parental behavior and contextual variations in adolescent self-esteem", *Sociometry* 35(2), 332-345.
- Gordon, D. (1969), "Self-conceptions methodologie", *Journal of Nervous & Mental Disorders* 148, 328-364.
- Habrat, A. (2018), *The role of self-esteem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NY: Springer.
- Hani Abood, M., Albadareen, G., M Gazo, A., & Alzyoud, N. F.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econd language anxiety among Hashemite University students in Jordan," *Journal of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Research* 1, 1-4.
- Hensley, W. E. (1977), "Differences between males and females on Rosenberg scale of self-esteem", *Psychological Reports* 41, 829-830.
- Horwitz, E. K., Horwitz, M. B., & Cope, J. (1986),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 ety”,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0, 125-132.
- Kalanzadeh, G.H. A., Mahnegan, F., Hassannejad, E., & Bakhtiarvand, M. (2013), “The influence of EFL students’ self-esteem on their speaking skill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Learning and Applied Linguistics World* 2(2), 76-83.
- Klein-Braley, C. (1981), “Empirical investigations of cloze tests”, Ph.D, Thesis, University of Duisberg.
- Lee-Ellis, S. (2009),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Korean C-test using Rasch Analysis”, *Language Testing* 26(2), 245-274.
- MacIntyre, P. D. & Gardner, R. D. (1989), “Anxiety and second-language learning: Toward a theoretical clarification”, *Language learning* 39(2), 251-275.
- Najloo, N. (2014), “Relationships between self-efficacy, self-esteem and procrastination in undergraduate psychology students”, *Iranian Journal of Psychiatry Behavioral Sciences* 8(3), 42-49.
- Pajares, F. (1996), “Self-efficacy beliefs in academic setting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6, 543-578.
- Pullmann, H., & Allik, J. (2000),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Its dimensionality, stability and personality correlates in Estonia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8, 701-715.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mitt, D. P. & Allik, J. (2005), “Simultaneous administration of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in 53 nations: Exploring the universal and culture-specific features of global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623-642.
- Schunk, D. H. & Hanson, A. R. (1985), “Peer models: Influence on children’s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7, 313-322.
- Scovel, T. (1978), “The effect of affect on foreign language learning: A review of the anxiety research”, *Language Learning* 28, 129-142.
- Watkin, D. (1978),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self-esteem measuring instru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2, 171-182.
- Young, D. L. (1991), “Creating a low-anxiety classroom environment: What does language anxiety research suggest”,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5, 426-439.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의적 요인이 한국어 숙달도에 미치는 영향

김미강·김영주

본 연구는 79명의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불안을 측정하여 한국어 숙달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각 정의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 김아영·박인영(2001)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Horwitz 외(1986)의 외국어 교실 불안 척도, Lee-Ellis(2009)의 Korean C-test를 사용하였다. 측정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SPSS 25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 참여자는 다른 한국어 학습자들보다 낮은 자아존중감, 높은 자기효능감, 낮은 불안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나이도가 높은 과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숙달도와의 관계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하위 영역인 자신감이 정적 상관관계를, 외국어불안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영향 관계를 확인한 결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자신감), 불안 점수가 한국어 숙달도 점수의 변화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심어 중도입국 청소년, 정의적 요인, 한국어 숙달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불안

ABSTRACT

Effects of Affective Factors on Korean Language Proficiency of Immigrant Adolescents

Kim Mikang · Kim Youngjoo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elf-esteem, self-efficacy, and anxiety on th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of immigrant adolescents. Rosenberg(1965)'s RSES, Kim & Park(2001)'s ASES, Horwitz et el.(1986)'s FLCAS, and Lee-Ellis(2009)'s Korean C-test were employed to conduct surveys with 79 immigrant adolescents in a high school. To analyze the data,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t test were used. The study found: (1) Immigrant adolescents had lower self-esteem, higher self-efficacy, and lower anxiety than any other language learners. Male immigrant adolescents preferred a higher task difficulty compared to their female counterparts. (2) Self-esteem and self-efficacy(self-confidence)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language anxiety was negatively correlated. (3) Self-esteem, self-confidence, and anxiety were factors affecting Korean language proficiency.

KEYWORDS immigrant adolescents, affective factors, Korean language proficiency, self-esteem, self-efficacy, anxiety

부록 1. 자아존중감 설문지(한국어)

□ 다음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4번 중 자신의 실제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하십시오.

내용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1	2	3
2.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3.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1	2	3
4.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할 수가 있다.	1	2	3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1	2	3
6.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7.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8. 나는 내 자신을 더 존중하지 못해 안타깝다.	1	2	3
9.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10.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부록 2. 자기효능감 설문지(한국어)

□ 다음은 공부와 관련해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6번 중 자신의 실제 상황과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하십시오.

내용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업시간에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1	2	3
2.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1	2	3

3.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내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준다.	1	2	3	4	5	6
4. 나는 보통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 공부한다.	1	2	3	4	5	6
5. 가능하다면 어려운 내용은 피해가고 싶다.	1	2	3	4	5	6
6.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1	2	3	4	5	6
7.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시험을 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듦다.	1	2	3	4	5	6
8. 나는 수업시간 중에 중요한 내용을 잘 기록할 수 있다.	1	2	3	4	5	6
9. 내가 싫어하는 수업시간에도 주의집중을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6
10. 나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보다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좋아한다.	1	2	3	4	5	6
11. 토론을 할 때, 혹시 창피를 당할까봐 내 의견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한다.	1	2	3	4	5	6
12.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바꿀 수 있다.	1	2	3	4	5	6
13.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이 더 재미있다.	1	2	3	4	5	6
14. 수업시간에 발표를 할 때 실수를 할 것 같아 불안하다.	1	2	3	4	5	6
15. 나는 시험 때만 되면 우울해진다.	1	2	3	4	5	6
16.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다.	1	2	3	4	5	6
17. 학교 공부는 무조건 쉬울수록 좋다.	1	2	3	4	5	6
18.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잘 안다.	1	2	3	4	5	6
19. 나는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과제를 잘 마칠 수 있다.	1	2	3	4	5	6
20. 쉬운 문제보다는 조금 틀리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좋다.	1	2	3	4	5	6
21. 선생님이 모두에게 질문을 할 때, 나는 답을 알아도 대답하지 못한다.	1	2	3	4	5	6
22.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1	2	3	4	5	6
23.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할 수 있다.	1	2	3	4	5	6
24. 나는 쉬운 문제를 여러 개 푸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 하나를 푸는 것을 더 좋아한다.	1	2	3	4	5	6
25. 나는 쉬운 내용보다는 어려운 내용을 좋아한다.	1	2	3	4	5	6
26. 수업시간 중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라고 시킬까 봐 불안하다.	1	2	3	4	5	6

부록 3. 외국어불안 설문지(한국어)

□ 다음은 한국어 학습에 대한 당신의 마음 상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5번 중 자신의 실제 상황과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하십시오.

내 용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한국어 수업에서 말할 때 늘 자신이 없다.	1	2	3	4	5	
2. 나는 한국어 수업에서 실수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1	2	3	4	5	
3. 나는 한국어 수업에서 호명될 것을 알 때 떨린다.	1	2	3	4	5	
4. 나는 한국어 수업에서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두렵다.	1	2	3	4	5	
5. 나는 한국어 수업을 더 듣는 것이 전혀 귀찮지 않다.	1	2	3	4	5	
6. 나는 한국어 수업 시간에 수업과 관련 없는 것을 생각한다.	1	2	3	4	5	
7. 나는 다른 학생들이 나보다 한국어를 더 잘 한다는 생각을 계속한다.	1	2	3	4	5	
8. 나는 한국어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볼 때 보통 편안하다.	1	2	3	4	5	
9. 나는 한국어 수업에서 준비 없이 말해야 하면 당황하기 시작한다.	1	2	3	4	5	
10. 나는 왜 어떤 사람들이 한국어 수업에서 그렇게 긴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1	2	3	4	5	
11. 나는 한국어 수업에서 아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긴장하기도 한다.	1	2	3	4	5	
12. 나는 한국어 수업에서 자진하여 대답하려고 할 때 당황한다.	1	2	3	4	5	
13. 나는 한국 사람과 한국어로 말할 때 긴장하지 않는다.	1	2	3	4	5	
14. 나는 선생님이 수정해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당황한다.	1	2	3	4	5	
15. 나는 한국어 수업을 잘 준비했어도 걱정이 된다.	1	2	3	4	5	
16. 나는 한국어 수업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1	2	3	4	5	
17. 나는 한국어 수업에서 말할 때 자신감이 있다.	1	2	3	4	5	
18. 나는 선생님이 내가 범하는 모든 실수를 다 수정해줄까 봐 걱정한다.	1	2	3	4	5	
19. 나는 한국어 수업에서 호명될 때 심장이 두근거린다.	1	2	3	4	5	
20. 나는 한국어 시험을 위해 더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진다.	1	2	3	4	5	
21. 나는 한국어 수업을 위해 잘 준비하는 것에 부담을 갖지 않는다.	1	2	3	4	5	

22. 나는 다른 학생들이 나보다 한국어 말하기를 더 잘한다고 항상 느낀다.	1	2	3	4	5
23. 나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한국어로 말하는 것을 아주 수줍어한다.	1	2	3	4	5
24. 나는 한국어 수업 진도가 너무 빨라서 뒤처질까 봐 걱정한다.	1	2	3	4	5
25. 나는 다른 수업들보다 한국어 수업에서 더 긴장한다.	1	2	3	4	5
26. 나는 한국어 수업에서 말할 때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진다.	1	2	3	4	5
27. 나는 한국어 수업에 갈 때 매우 자신감이 있고 편안하다.	1	2	3	4	5
28. 나는 한국어 선생님이 말하는 모든 단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 불안해진다.	1	2	3	4	5
29. 나는 한국어를 말하기 위해 배워야 할 규칙이 많아서 부담이 된다.	1	2	3	4	5
30. 나는 내가 한국어를 말할 때 다른 학생들이 비웃을까 봐 걱정한다.	1	2	3	4	5
31. 나는 한국 사람들과 어울릴 때 편하게 느낄 것이다.	1	2	3	4	5
32. 나는 한국어 선생님이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을 질문하면 불안해진다.	1	2	3	4	5

부록 4. 한국어 빙간 채우기 시험지

다음은 여러분이 얼마나 한국어로 된 글을 잘 이해하고 쓸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다섯 문단의 글이 있습니다. 각 문단에는 단어의 일부가 지워져 있습니다. 글을 잘 읽고 지워진 글자를 써 넣으십시오. 밑줄 하나에 한 글자를 쓰십시오. 틀린 단어를 썼다고 점수가 깎이지 않습니다. 철자를 틀렸더라도 단어로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예) 안녕 ___ . 제 이 ___ 김철수입니다.



안녕 하세요. 제 이 를은 김 철 수 입 니다.

부분 점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워진 부분의 글자를 다 알지 못한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아는 부분만이라도 써주십시오.

주어진 시간은 40분입니다. 본 시험은 초급부터 원어민에 가까운 수준까지 모든 범위를 포함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Passage 1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저는 대학 _ _ 다닙니다. 아침에 일어 _ _ 학교 체육 _ _ 갑니다. 체육 _ _ 운동을 합 _ _ 운동을 한 다 _ _ 아침을 먹습니다. 아침은 기숙 _ 식당에서 먹습니다. 저는 대학 _ _ _ 한국어를 배 _ _ _ . 한국어 수 _ _ 매일 오 _ 10시에 시작 _ _ _ . 한국어는 쓰 _ _ 말하기가 어 _ _ _ _ . 그렇지만 듣 _ _ 읽기는 쉽 _ _ _ . 한국어 배 _ _ 것이 참 재미 _ _ _ . 주말에는 친 _ _ _ 같이 극 _ _ _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_ 후에 한국 식당에서 저 _ _ 먹습니다. 한국 식 _ _ 극장 바 _ 옆에 있습니다. 불고 _ _ 맛있 습니다. 김치찌개는 맵습니다.

Passage 2

올 여름에는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 여행을 가려고 해요. 제주도는 한반 _ _ 남쪽에 있 _ 섬이에요. 한국의 하와이라 불 _ _ 제주도는 자 _ _ 아름다워서 신혼 _ _ 장소로 인 _ _ 굉장히 많 _ _ . 오늘은 여행 _ _ 전화를 걸 _ 서울에서 제주도 _ _ 왕복 비행 _ _ _ 네 장 예 _ _ _ _ . 여행 _ _ _ 호텔도 소개 _ 주었지만 호텔은 아직 안 정 _ _ _ . 인터넷으로 정 _ _ 더 찾아 보 _ 어느 호텔이 좋 _ _ 지 알아 보 _ _ 해요. 요 _ _ 인터넷이 있 _ _ 호텔뿐 아 _ _ 유명한 관 _ 명소와 맛 _ _ 식당도 찾아 볼 _ 있어서 참 편리해요.

Passage 3

안녕하세요. 서울역 앞에 위치한 서울 백화점입니다. 저희 백화점 _ _ _ 겨울을 맞 _ 겨울옷과 난 _ 제품을 세일 _ _ 있습니다. 직장 여 _ _ 위한 여성복 코너 _ _ 여성 정 _ 과 겨울 속 _ _ 50프로 세일하고 있 _, 삼층 아동 _ 코너에서도 쿄 _, 목도리, 장 _ 등의 겨 _ 상품이 각 30프로씩 할 _ _ 가격에 판 _ _ _ 있습니다. 칠 _ 에서는 집안을 따 _ _ _ 해 줄 전 _ 히터와 가스 난 _ 등 다양 _ 난방용 가 _ 제품을 특가판 _ _ 있습니다. 저 _ 서울 백화점과 함 _ 겨울나기 준 _ _ 시작하세요. 고객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assage 4

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뭐니뭐니해도 교통 문제가 제일 크다. 도로에서는 교체증으로 인 에너지와 시 낭비된다. 특히 출 시간에는 한꺼 차량이 일제 몰려서 도 아주 복 . 게다가 뉴욕 같은 대도 주 차난은 매 심각한 수준 . 자동 점점 많아 반면 주 공간은 제 있기 때 주차난이 생 . 주차장이 부족하면 사람 주택가 골 이나 도로에까지 주차를 하 경우가 많다. 이렇게 불 으로 주 차량은 또 다시 교통 혼 원인이 되 더 심 교통 체증을 일으킨다. 따라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가용보다는 버스나 지하철을 많이 이용해야 할 것이다.

Passage 5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 인간답게 살아 간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 지키고 자신 행복을 추 면서 사는 것을 의미 . 사람들은 저 행복을 추 있으며, 그러한 행복을 누 위해 열 노력하고 있다. 행 정의는 개인 다 다를 수 있다. 다른 사 위해 봉 것, 자 꿈을 실 위해 노 것 등 각자 행 기준이 다 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 주지 않 한, 행복 추구권은 존중 . 이런 권리는 인간이라면 누 다 보 받아야 할 당 권리이다. 이런 권리를 우리는 기본권이라고 한다.